

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애월읍 고내리 김영순, 장인숙 해녀

해녀: 김영순(1946생, 12살 때 물질 시작),

장인숙(1952년생, 1972년 결혼, 1974년 물질 시작)

인터뷰 일자 : 2019.
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

해녀 : 김영순(A로 기록), 장인숙(B로 기록)

Q : 저기, 고내 바당이 어떤 바다입니까?

A : 고내예, 여 바당이 많아마썸. 여 바당. 궁돌팻¹⁾보단 여 바당이 많고, 또 기정 이 바위, 기정 밑에는 돌 바당이고, 궁돌 바당이고. 경 안헌 디 다 여 바당이우다.

Q : 그런 데가 물건들이 좋잖아예?

A : 예. 그 여 바당에는예, 옛날에는 물건이 많이 있어수다게[이서수다게]. 전복도 많이 있었고, 소라도 많이 있었고. 고내 바당이 또 넓어예. 넓으고, 물건도 딴 마을보다 더 남덴. 경해나수다. 경헌디 이젠 그 하나씩 엇어저불언마썸[어서저부런마썸].

Q : 경계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

A : 경계는예. 애월항 지금 배 들어가는 디 있지 안허우파? 배 들어가는 호꿈 동 저, 서짜꼬장²⁾ 갓우다[가수다].

Q : 음

A : 그 이제 저 엘엔지(LNG)가스 코지 나왔우게[나와수게]. 그 코지꼬장 코지 호꿈 넘어꼬장은 고내 바당이라예. 경헌디 그것이 그레 나와불엇고. 또

B : 동쪽

A : 이 동쪽으론 가면 심엄 포구엔 헌디 있어수다[이서수다]. 신엄 포구가 완전 고내 바당마썸. 거, 글로 가면 그 호꿈 동쪽더레³⁾ 가가문⁴⁾ 신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예. 그 길로 끊어가지고 이 서쪽으론 고내니까 바다도 그쪽으로 그칭게(?⁵⁾ 나가면 고내바당이고

Q :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?

A : 이제 이십육명(26명)마썸. 고내

Q : 음, 상시 허시는 분들?

A : 상군마썸?

Q : 아니, 계속 하시는 분이 스물여섯명(26명)?

A : 예예 예. 경 안 허문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꼬정 허민 이십팔명(28명)이엔 해신디, 줄어 들어 감수다. 해녀가

Q : 매년

A : 예. 이제 현 삼명 줄어들어 가문 한 이십오명(25명)으로 줄어들 걸로 밤수다.

Q : 그 언니는 그러면은 지금 상군이시면서,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할 거파?

1) -팻 : 발. = -왓. -왓은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날때는 -왓으로 발음한다. 예) 모래왓 : 모래발.

2) 서짜꼬장 : 서쪽까지 => -꼬장 : -까지

3) -더레 : -으로

4) 가가문 : 가다보면

5) 그칭게(?)

B : 아니. 중간 편이우다. 더 밑에 잇우다[이수다].

Q : 아, 더 밑에 있고?

B : 예예. 이제 한

A : 일곱

B : 오십

A : 일곱

B : 일곱, 일곱인가. 오십일곱(57)이 제일 막내고, 그 위론 육십다섯(65), 육십넷(64), 육십셋(63). 중간편에 속함수다.

Q : 고내 바당에선 뭐 뭐 많이 남수과?

B : 해삼. 해삼이 제일 많이 납니다. 밖으론 모래 바당이난예. 양식을 해도 해삼이 잘되는 것 같애예. 좀, 보통 탄 데는 전부 한 십오명(15명), 이십명(20명) 물에 간덴 해도 이,삼십키로(2,30kg) 모영 이,삼십키로(2,30kg)도 못헌덴 해도 있곡, 또 한 십키로(10kg)미만 헌 디도 있곡 허는디, 우린 한사름이 경해져마썸.

Q : 음

B : 한사름이, 한사름이 이,삼십키로(2,30kg)씩

Q : 흥해삼예?

B : 예예.

A : 작년엔 엄청 많이 낚주.

Q : 해삼은 어떤 데가 잘 자라마썸? 해삼 잘 사는 곳

B : 아무튼 모래 있고, 또 잡풀도 있고, 좀 이끼가 있고, 그런 디 사는 거 닳읍디다게. 영 보 면예. 죽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, 가이⁶⁾가 돌 우에도 올라오고, 돌 옆에도 있고 허는 거 보면

Q : 가이는 그냥 기어 다닙니까? 그냥

B : 예예. 기어다니곡, 우리가 해삼 저기 철낭⁷⁾ 잡으레 강 보문 솔청고랭이고치⁸⁾ 막 돌 우이 죽 뻗어정예. 쌀 과짜허영 주작주작주작 이십니다게. 또 모래 반 저기, 돌 반 헌 디 그 옆으로도 있곡예, 모래에 또 굴러다니기도 허곡. 멀리 가는 거 닳아마썸. 모래 있는 디 밖으로도 막 있는 거 보면. 해섬⁹⁾ 막 날 땐 밖으로도 막 갑니다게.

Q : 아, 해삼이 많이 남구나.

B : 예.

Q : 구쟁기¹⁰⁾도 많이 나지예

B : 예. 구쟁기도 보통 애월보다는 적어도 보통 나옵니다.

Q : 구쟁기는 어떤 데 많이 나는 일정 지역이 잇우과?

B : 아니, 아까 이 전직 계장님이주마는예. 계장님도 애기했주마는 옆바당이난예, 돌 우에도 있곡, 궁돌 옆으로도 있곡, 또 가이가 들어갈 땐 들어갔당 나오민 그냥 보통 시월(10월) 달 되영 헤치해영 우리 들어강 보민 돌 우이 그냥 주작주작 잇입니다게[이십니다게]. 그 런저런 거야 이 계장님이 더 잘 알주게마썸. 경험이 많으난. 어느 때 돌 우이 있고, 어느 때 들어가고. 해삼이 어느 때 나오고, 어느 때 들어가고, 난 무대뽀로 그자 물질함수다게.

6) 가이 :

7) 철낭 : 철예, 철이 되면 예) 여름철

8) 솔청고랭이고치 :

9) 해섬 : 해삼

10) 구쟁기 : 소라

Q : 계장님, 그 구쟁기, 이 조쿠쟁기가 태어난 후에 어떤 식으로 알 낳고 그렇게 됩니까?

A : 어떤 식으로 알 낳는 건 모르고예. 우리가 한 시월(10월)달 쯤에, 시월(10월)달 쯤에 그 이제 돌 아래나 어땡허당 돌을 뒤집거나 경행 보른예 쪼끄만 현 소라 새끼덜이 그 이제 고메기라고 허는 보말 알지예. 쪼끄만 현 보말 새끼예. 그 모양으로 허영 양, 돌 아래 신¹¹⁾ 거 보른예. 이 알을 낳젠 허른 가에 와서 소라가 알을 낳는 거 같애마썸. 경허영 커 가명 가이가 내려가는 거 같으우다. 경헌디 소라가 제일 많이 나는 구역은 여바당이 많이 납니다. 궁돌밭보단. 여예가 이 여 고망마다 여 우티영 그 소라가 우리가 금치 했다가 채 취 행 보면 여예 많이 나고, 또 우리 옛날에는 남돌이 바당이엔 허연 그 동쪽의 여 바당 에 그디가 소라가 엄청 많아수다. 한 개방을 시키렌 허연 그 때 돈을 얼마 쥘 개방을 시키렌 허니까 거기 조금 개방 시키렌 허난 줌녀¹²⁾덜이 다 반대해나수다게. 황금바당이엔 현예. 엄청 가에고, 밖에고, 오분자기, 뭐 전복, 그 바다에는. 가으로는 또 궁돌이고, 밖으로는 여 바당이니까. 소라고, 전복이고,오분자기고 동 바당에 가면은 거기가 제일 많아수 다게. 경헌디 지금은예. 그 저, 어덜로 우에 호텔덜 많이 짓언, 지금은 이 해안도로로 하 수구가 어드레 내려가수다마는 그 때는 바다로 다 빼불어. 경허다 보니까 그게 오염이 된 모양이라예. 건디 그 바다엔 이젠 물건이 얼마 엇어마썸. 얼마 엇인디 가으로는 좀 풀이 나는 것 같은데, 물건이 얼마큼 또 생산이 될지, 가네가 이제 생명력이 얼마나 켁 올라올 지 모르쿠다마는 조금 한 작년 재작년보다는 바다가 조금 나아진 건 같으우다.

Q : 그거는 무산고¹³⁾예?

A : 그 호텔덜 짓언예. 글로, 막 하수구가. 거기가 굴렁 바당이라부난 글로 다 내려온 거 같 애마썸. 예, 그 거 땀에 오염되가지고 했는지 몰른디 백화현상처럼 문딱 바다가 그냥 거기가 다 없어져불언. 소라도 크지도 안하고 없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지 안 햄신 가 생각으로.

Q : 바당 풀들이 호꼼씩¹⁴⁾ 나사점신게¹⁵⁾

A : 예, 예.

Q : 그 소라를 잡을 때는 보통 그냥 손으로 좇어 넣고

A : 예

Q : 호맹이로?

A : 아니. 소라는 손으로 잡아옵니다. 손으로 좇어와

Q : 손으로 떼어 넣고

A : 예

Q : 호맹이를 사용할 땐 어떤 땀고?

A : 와. 그거는예. 문어나 봐지믄 문어나 잡젠, 그 문어 보른 문어 잡젠 호맹인 들렁 들어가 도 소라는 호맹이로 잘 안협니다.

Q : 그러면 문어는 다 구멍이 잇우과?

A : 예, 예.

Q : 그 구멍을 다 기억할 수 잇구나예.

A : 아니, 기억할 순 엇입주게마썸. 다니당 보면 어느 돌 틈에 잇던가, 어느 여 틈에 잇던가

11) 신 : 있는 => 시다 : 있다

12) 줌녀 : 줌레. 해녀

13) 무산고 : 왜일까, 어떤 까닭일까?

14) 호꼼씩 : 조금씩

15) 나사점신게 : 나아지고 있네

하면 그 볼 때 그 까꾸리로 걸렁 오젠 그걸 가정다닙니까.

Q : 문어 구멍이 있다라고 하던데

A : 문어 구멍에도 살주만은 여틈에도 있고, 있다보면 돌 아래에도 있고, 여 밑에도 있고, 그럴 때 잇입니다 그거.

Q : 언니는 문어 잘 잡으는 편이파?

B : 아니. 잘 잡으나마나 문어 그냥 보통 허는디, 가 보면예. 야이가 자기의 침 집 지영 방어 뭐로 자갈이나 뭐로 막 내칭 잇입니다게. 경허난 우에서도 보면 경헌 디 잡아 와분단 구멍이 그냥 뽕 돌렁 잇어도, 경 안헌딘 가이가 막 모래고, 자갈이고, 영 내칭 보래기 부깍 부깍 머리가 영 잇입니다게. 발도 영 주욱 나올 때 있고, 경허른 잡아 오는디 가이 틀립니다. 문어 잡아오는 고망이. 그추룩 행 다양 방어 장치를 행 돌 내칭 집지영 쪽 들어강 잇어마썸

Q : 어, 자기대로

B : 예. 경행 큰 것덜은 잘 못 잡앙 뗏 숨 들어강 잡고, 경 안혈 땀 아다로 되영 침 가이 창통이 톡 걸려질 땀 집영 그자 심영 오고

Q : 문어는 그냥 창통이 데쓰니까? 잡으면

B : 잡으면 또 나와볼카부덴 창통이영 데쓰는 사름은 데쓰곡, 또 경 안허른 그 까꾸리 호멍이 들른거예. 걸로 눈, 콧 눈 두개(2개) 그냥 찢르른 가이가 그게 직통 똥지사 경 도망가지 안허영 잇입니다게

Q : 문어는 가장 많이 잡아 본 때 몇키로(몇kg)까지 잡아 봅디가?

B : 아이고, 문어 몇키로(몇kg)까지 못 합니다.

Q : 예

B : 하나가 한 이키로(2kg) 가는 것도 있고, 일키로(1kg) 가는 것도 있고, 또 한 뗏 백, 한 칠,팔백(7,800) 심지어는 한 어린 것이 새끼 잡아 올 땀 삼백,이백짜리도 잇인디. 한 이,삼키로(2,3kg) 잡을 때도 있고, 그자 일키로(1kg) 잡을 때고 있고 헌디, 주로 난 소라나 해섬 많이 허주게. 그런 거 잘 못 합니다게. 저 심은 허렌 허른 잘 잡아옵니다게.

Q : 그러니까 그 걸 잘 잡는 사람이 또 있는 모양이라예.

A : 예. 아니, 잘 잡는 사람만이 아다로, 아다로 되기가, 아다로 되기가 허고, 아까 얘긴디 장 인숙이가 얘기 해주마는예. 그 모래 파내영 잇곡, 자갈로 덩으곡 허는 거는 저 알 싸젠. 그 속에 알을 낳젠 허영 모래를 팡 자기 자리를 행 잇영마썸. 경허영 그런 디 있다기네 들어 강 보면 이 한 오월(5월)달쯤에나 그런 때는예. 들어 강 보든예. 알이 그랑그랑그랑 막 돌아정¹⁶⁾ 잇입니다게

Q : 거는 암컷이 알을 쌓는 거잖아예. 건 암.수 구분이 가능힙니까. 문어?

A : 우리 문어 잡아 왕 창통이 뒤집영 보든 암커는예. 둥그런 알이 있고, 수커는 그 알이 엇 언예. 기름 닳은 것만 잇입니다. 뒤집영 보든

B : 먹만 잇고예

A : 응. 먹허고. 먹은 다 문어마다 잇고

Q : 그거 암.수가 있으니까 그거 아니예?

A : 으음

Q : 색깔로도 구분이 되기는 헐 거라예

A : 색깔로는 구분이 안됩니다.

16) 돌아정 : 달아매어

B : 색깔로 구분 안될거우다.

A : 문어는 교미를 하는지 싸우는 건지는 몰라도예. 나도 문얼 멧, 제일 많이 잡을 때가 오키로(5kg)까지 잡안 봐수다마는. 그 바다에서 문어 둘(2)이가양 막 곶이 푹 코칭헌 문어 두개(2개)가 막 모래에서 뒹꿍디다게. 게난 두개(2개) 다 심언¹⁷⁾ 와신디, 놈덜은 그 거 사랑 표시 허는 거 심어 왔져, 뒹했져 허는 디, 참 그런 문어도 잡아 보고예. 나 혼 그 옛날입 주예. 우리 소라가 혼근(1근)으로 혈 때, 혼근(1근)에 이십원(20원) 혈 때 문어가 이십칠원(27원) 줘수다게. 잊어불지, 잊어불 수사 잊어예. 그거는. 문어를 하도 큰 걸 심어지니까 바구니로, 그 땐 바구니로 지연 바다에 다녀수게. 그 바구니로 반을 허연예. 반 되난 뜨른 한 유,칠키로(6,7kg)도 더 간 거 같애. 여기서 풀면 이십칠원(27원)씩이란 싸고, 시내 가면 싸니, 비싸게 받으니까. 바구니에 난예.. 버스에 탄 시내 간 푹는디 크덴 아무도 안 산예. 발 하나씩 끊으멍 식당마다 문 성으로 다 다 돌아다니멍 풀아냥 와수다. 시내 가면 삼십원(30원) 주니까. 그거 받젠

Q : 그 전복은 어떻 잡아난 거 말씀허문

B : 아이고, 전복 이제 힘들니다. 예.

Q : 아 이제 말고

A : 메역은

B : 십오년(15년)쯤, 혼 이십년(20년) 전만 해도예. 십키로(10kg) 그냥 십오키로(15kg)씩 해수다게. 아물든 최고 해수다. 전복 그렇게 해신디 이젠 한 물찌에 전복 일키로(1kg) 허기가 힘들니다.

Q : 거른 전복 한 물찌에 일키로(1kg)도, 아 그거는 큰 거

B : 예 예. 칠센치(7cm) 이상만 받기 때문에. 그 이상은 전복이 힘들어

Q : 전복은 어떤 데 잇입니까?

B : 전복은 돌 밑에도 잇곡, 돌 옆에도 잇고예. 돌 우이도 잇곡 헌디, 이젠 돌 우이 잇는 것이 드릅니다게. 이젠 돌 밑에나 어떻허당 옆이 보민, 옆이나 전에는 첨 여기 계장님, 전직 계장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문 다 여 바당이난예. 저 동쪽에 가면, 밖에 쑥 나가면, 아시 아 방송국이 다 보일 정도로예.

A : 반 착질 해왔주게

B : 우리 물질 해나수다게. 경헌디 그덜 가면 두개(2개)씩 세개(3개)씩 막 부떠¹⁸⁾. 그런 때는 혼 십키로(10kg) 이상씩 한 소문나게 나도 해수다마는. 이제 전복이 그런 디 안가곡, 가 보지도 안했주마는 엇일결로 보는디, 잊이문예. 굿디로 가이가 둥글어 올 건디, 없고 또 어떻허당 이 앞바에 이런 디 일명 궁돌밭디

Q : 하나씩

B : 예. 하나씩, 첨 뭇 허영 잡아오주. 한 이십오명 혼 이십명 들어도, 전복, 전복 금채기간 끝나도예. 하나, 둘 그렇게 해웁니다. 그냥

Q : 전복은 비창으로 떼는

B : 예. 비창으로 떼고, 첨 뭇허주마는

Q : 조심해서 떼야지

B : 솔 가문 방금 해난 거 조심히 해영 떼어 오곡 허주마는, 조심히 땠 정도보단도 보이기가 힘들어. 이젠 보이기가

17) 심언 : 잡아 => 심다 : 손으로 붙잡다, 붙들다

18) 부떠 : 붙어 => 부뜨다/부트다 : 붙다

- Q : 막 물이 깊으거나 허지는 안협니까? 그 뭐 전복은 깊은 물 속에 있는 일이라든가
- B : 아니, 이 고내 바당은 깊은덴 협니다게. 고내 바당 물질 해난 사름은 어디 강 물질 떨어 지지 안 허영 헨다허영 깊으는다, 전에는 그 먼 디 나강 그 깊은 바당에 잇어신디, 지금은 그런 디도 안 나가주마는, 이 가으론 이 절벽 옆으론 궁돌인디, 또 그 절벽 옆으로 이 쪽으로가 전복을 좀 많이 나나신디, 이젠 그 쪽으로도 엇우다게. 이 첨 영순이 계장님, 계장혈 때, 그 전, 그 전 계장이로구나. 혈 때도예. 다이빙 밤에 들언예 첨 헨 십키로 (10kg) 잡아 완마심게. 경허연 우리 잡안 뭐허멍 해나신디, 그 후론 전복이라곤 엇우다. 그 때 경해난 후로는. 전복이 그 때 다 나와불언신디사
- Q : 뭐 종패 같은 건 안 햄수과?
- B : 아, 종패 햄수다게. 올해도 허고 종패해도, 종패 주옥 옛날부터, 한 멧 십년 전부터 저 포항산 전복 그 때 씨 들여오멍 허연 해신디, 전복이 경 안되는 거 다향. 영 정 고내 바당엔. 아물든 해삼은
- Q : 잘 되고
- B : 잘 되는 거 다향디다. 해삼은 종패도 계속 뿌리주마는 해삼 많이 나오는 거 보면
- Q : 그러면 여기는 뭐 으흠, 우미나 툷은 어떻 햄수과?
- B : 아, 툷도 그런대로 괜찮게 좀, 저, 학위나 이런 학위 같은 데 보다는 떨어져도 괜찮게 나는다, 우민 경 엇입니다게. 저 전부해야 올해도 헨 스물 멧포 했던 허니까. 거 저 동촌 사름덜은 경 했던마썸. “거, 혼사름이?” 허난 혼사름이 아니고 전체가 헨 것이 그추룩 백이 안난 우민 엇인 바당입디다게.
- Q : 으, 우미는 없고
- B : 우미나양, 이 몫, 이런 이런 건 엇인답디다게.
- Q : 그 성게 요즘 잡고 있잖아예. 성게는 많수과?
- B : 아, 성게도 탄 바당보다는 많이 엇곡, 우리 조물아도 놓지 안 허영, 그냥 그대로 그자리에 있는대로 잡암수다. 어디에 이웃 부락덜 보민예
- Q : 잡아당
- B : 잡아다기네 파래 잇인 디 들이치곡, 몫 잇인 디 들이치곡 헨덴 허는디 우린 경 안허곡,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로 그자 좀 동쪽에 가곡, 서쪽에 가곡, 이 앞에 양식장이난 그냥 이 앞에 하루 들곡, 경해영 들주게. 잡아당 키우지는 안 허는디, 그런데로 탄 딴 뭐 하루에 잡아 오만 허민 식구덜 다 강 깡 헨 십키로(10kg) 헨다 뭐 헨다해도 우린 최고, 이 전 직 계장님이 최고 협니다. 성게는. 경해도 헨 이키로오백(2.5kg), 삼키로(3kg)가 최고. 혼자 조물아당 혼자 까는 거라양. 경허곡
- Q : 경해도 요즘 가격이 좋으니까
- B : 예 예. 키로(kg)에 구만원(9만원) 허니까. 탄 딴 식구덜이 다 간덴 협디다게. 뭐, 학교 갔다오민 학생덜도 티스푼 하나 들렁 그냥 내려가곡, 남편덜도 가곡 헨덴 한게, 우리 고년에 남편덜 그거 까즘이랑말앙 막걸리 헨잔 허영 그거 먹지 못허영 허곡. 까주지 안 협니다. 우리가 조물아당 우리가 깡 뭐 허주.
- Q : 그 계장님은 물 속으로 들어 갈 때예.
- A : 예
- Q : 내가 어느 깊이까지 와졌저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잇우과?
- A : 예. 전에는 그 어느 깊이 간다는 거를 몰랐어예. 그냥 그 옛날 상군덜이 우리 어머니네나 다 돌아가셨주마는 옛날 어른들허고, 처녀 때 돌아다닐 때에는 어느 만쯤 깊이라는 걸

모릅디다. 그자 보이믄 들어강 해지고, 뭇 귀도 안 아프고, 경허멍 헌게예. 결혼허멍예. 결혼허연 가멍 그 육지 물질도 우리 짚은 디로 가는 사람. 처음 뽑아 갈 때도 야이영 나이영은 우리 짚은 디 그 가는 딜로 강 우미도 조물앙 오고 해수다마는, 결혼어영 살아 가멍 뭇가 힘들었는진 모른디, 양 귀가 때령 못갑디다. 귀가 아판. 들어 가가면 귀가 '치 이잉' 허영 귀가 '씨~익' 아프곡, 경허여 가난예 짚은더레 그 옛날 처녀 때 가던 바당을 못 갑디다. 우리 처녀 때에 갈 때는, 야이가 아까 방송국을 보염젠 허주마는 아시아 방송국 반착, 이 아시아 방송국 그 대 세와진 거 잇우다. 그 대를 이 반착 넘어 보이게 가예. 그 멀리 갈수록 이 거이 많이 보입니께. 또 이 요 앞으로 조금 동 바당으로 들면 그 거 보입니다게. 또 이 동쪽으로 오면은 우리 그 리사무실